

강화군, 도로망 확충으로 성장 잠재력 'UP' “광역교통망 추진”

강화군이 광역 및 내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주민 삶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지역에 무한한 성장

강화군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광역교통망 추진’

광역도로망

- 계양-강화 고속도로: 2,355,789억원, L=31.9km(4-6차로)
- 21.3월 당당성조사 착수 / 24년 공사공급 예정
- 영동-강화 교량건설: 6,573억원, L=14.8km(2-4차로)
- 21.9월 1공구 영동-신도 착공
- 마송-강화 국도 확장: 1,464억원, L=7.49km(이존 4차로 → 6차로 확장)
- 21.7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국토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 인천서구-초지 김포해안도로 확장: 466억원, L=6.4km
- 21.10월 착공(24.5월 준공 예정)

내부도로망

- 북단 해안순환도로 건설
- 2공구 300억원, 19.11월 완료 - 5공구 800억원, 24년 추진 예정
- 4공구 934억원, 20.7월 착공(영동-신도)
- 길상~선원 도로 개설: 839억원, L=9.44km(4차로)
- 공정률 15.4%(21.5월 준공)
-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 93억원, 25.3월 준공
- 알미골~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23억원, 22.12월 준공
- 국도 동 내부도로망 정비: 25개 사업 691억원

행정과 - 도로망 계획

광역도로망으로 ‘강화~계양고속도로’(사업비 2조 5천억 원)가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4년 공사가 착공된다. ‘강화~영동 교량건설(사업비 6천5백억 원)은 1공구사업으로 영동~신도 구간이 지난해 9월 착공했다.

강화~마송 국도확장(1천4백억 원) 사업은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토부의 국도·국지도건설 5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으며, 인천 서구와 길상면을 잇는 김포해안도로확장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오는 24년 5월 준공예정이다.

내부도로망도 대폭 확충된다. 해안순환도로 2공구가 지난 19년 6월 개통된데 이어 제4공구 사업이 ‘창후~인화구간’ 먼저 착공해 공사 중에 있다. 제5공구 사업은 24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길상~선원 도로개설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15.4%을 보이고 있다. 월선포~상용 해안도로는 25년 3월에 준공되며, 알미골~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12월에 준공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계양 고속도로가 강화구간부터 공사가 시작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차질없는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강화군에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 주민 안전 최우선, 새로운 시대 선도

“아름답고 깨끗한 강화”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등을 통해
“길거리 어딜 가도 ‘깨끗한 강화’,
깨끗한 환경’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강화’ 조성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250개소(기존 225 → 475개소)
무단투기감시 CCTV 확대: 100대(기존 363대 → 463대)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확대: 150만매(‘21년 100만매 → 22년 150만매 제작)

생태·문화·관광·레저가 공존하는 강화군, '외포리 프로젝트' 종합개발 추진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참여시켜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실현



강화군이 외포리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문화·관광·레저 복합 거점공간으로 개발

군은 올해부터 '외포리 프로젝트 종합개발 사업'과 함께 '외포권역(외포항·황청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속발전 가능한 선순환 수

산·관광 생태계를 만들계획으로 외포항에서 수산물직판장·삼별항몽유허비·망양돈대·삼암돈대를 거쳐 황청항까지 '내가 새우路'를 조성해 단절 구간 없는 도보 구간으로 연결한다.

군은 '외포리 프로젝트 종합계획'으로 ▲관내 모든 수산·어업인이 참여하는 '종합어시장'을 25년까지 건립하고, ▲퇴역함정을 활용한 함상공원을 조성해 조선의 최초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며 '외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어구어망창고 등 어촌기반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외포항 포토존 정비, 바다쉼터 조성 ▲수산물직판장 새우젓 상징 특화 ▲삼별초 역사광장 정비 ▲갈매기 생태학습장 등을 본격 조성할 계획이며, ▲32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외포와 석모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포항을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거점명소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며 "계획단계부터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참여시켜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 권주형 기자

강화군,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양육 부담 덜어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 원 지원 출산가정 최고 수준 출산지원금외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강화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원과 출산가정의 양육비 경감에 나선다.

군은 2022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한도를 1인당 10만 원을 가산한다.

출산가정에는 수도권 최고 수준인 강화군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다태아, 출생순위 등에 상관없이 일괄지급하며, 바우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1월 출산지원금을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첫째아는 출산지원금, 생일축하금 및 양육비를 포함해 740만 원 ▲둘째아는 1,160만 원 ▲셋째아는 1,960만 원 ▲넷째아 이상에게는 2,8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 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관내 거주(주민등록) 3개월 이상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Photo NEWS

현·장·행·정



사회복지과 - 아이키우기 좋은 강화



사회복지과 - 건강드림카



청년창업 사업장 방문

강화군 행복통신망 단군콜센터

출로 지내시는 모든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겠습니다.

단군콜센터
1,944명

독거노인
맞춤돌봄서비스
940명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1,076명

3,960명의 출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진심을 다해 케어합니다.

☎ 032-930-3100

"독거 어르신을 위한 행복통신망 '단군콜센터'"

어르신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언제든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해인사



박 승 한
강화군의회 부의장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부의장 박승한입니다.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변화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우성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속에도 강화군의 각종 지침에 협조하고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강화군은 국난(國難)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고장입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더욱 강인한 힘을 발휘하고 단결하는 특유의 정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이겨 낼 것이고, 그 끝도 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제8대 강화군의회도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 속에 여러분의 고귀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토록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기초의회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의 역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적극 협조하는 역할 또한 기초의회의 사명입니다. 민선7기 강화군의 정책방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느 한곳 소

외되지 않는 복지지원에 두고 있기에 강화군의회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주변에 속속 모습을 보이는 공원, 주차장조성은 물론 재활용동네마당설치,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생활불편사항 해결이 대표적입니다. 강화군 행복센터, 해누리공원, 기독교 역사기념관, 북부문화센터, 강화국궁장, 치매안심센터 등 복지,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 국가유공자, 여성, 출산, 보육, 교육지원은 강화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군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 강화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늘진 곳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

이 약속 변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기계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의 의안발의, 예산·결산 심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호랑이 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화군의회와 저는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새해인사



박 용 철
강화군의회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강화군 의회의원 박용철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물론 그동안 제가 3선 의원으로서 봉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인사와 함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어업인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두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의 삶은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물결이 사회 곳곳을 멀어지게 했으며 그동안 수 천 년 간 이어온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저는 우리 강화가 더욱 풍요롭고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모두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기초의원으로서 느껴왔던 한계를 이겨내고 강화의 미래를 준비하고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해는 제 8대 강화군 의회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의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알찬 마무리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역에 계신 군민여러분을 더욱 자주 찾아뵙고 미처 살피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화군은 주민복지와 소득향상을 위해 역대 최대의 사업을 벌여왔으며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 공영주차장 확충을 비롯해 환경리 해누리공원, 행복센터건립, 교동화개정원, 기독교100주년 기념관 등 많은 사업들이 완료되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화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협치의정으로 강화군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올 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 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토록 소중했던가하는 소심한 자각과 앞으로 이러한 일상을 지키는데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군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군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인사



김 건 하
강화군의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현장중심 열린의회, 할 일 하는 강화군의회 의원 김건하 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제가 강화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슴벅찬 희망으로 시작하는 2022년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계속 달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는 현장의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협치의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과 대립 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군 집행부와 상시 소통하

며, 집행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합리적이고 원만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협치의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강화군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해에는 우리 모두를 힘들고 지치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바람을 마주 보고 맞으면 역풍이지만 뒤로 돌아서서 맞으면 순풍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예기치 못한 역풍이었지만 우리는 이 역풍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단결된 군민의 힘이 있기에, 이를 이겨내고 강화군이 힘찬 발걸음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강화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함을 통해 어떠한 일이라도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 해 강화군민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인사



김 동 신
강화군의회의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의 김동신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의원으로 발을 들여놓은 지, 거짓말과 같은 시간이 흘러 4년이 되어 임기를 몇 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가끔, 군의원 출마와 함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 4년의 옛생각에 잠겨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이 불고 비오는 곳은 때도 있었으나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진심으로

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화군민여러분!

군민 여러분과의 끈질긴 인연으로 함께 고민하고 즐거워했던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만 느껴집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으로 강화와 지역발전의 원대한 약속을 지키고 군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과분

한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인 '갈매기의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작품속의 주인공인 갈매기 조나단은 동료 갈매기들과 함께 바닷가의 쓰레기와 선창가의 고깃배 주의를 땀들면서 먹다버린 빵조각을 먹으려고 서로 다투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조나단은 먹기위해 아귀다툼을 하는 생활에 싫증이 났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아 오르고 싶었고 결국, 그는 부모와 형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하늘을 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갈매기 조나단은 피나는 노력과 눈물겨운 인내로 하늘 높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인 리처드 바크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탈출하여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인생의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똑같은 인생,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인생과 시간의 질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힘차게 도약하고 갈매기 조나단처럼 꿈을 꼭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인사



오 현 식
강화군의회의원

2022년 저의 고용주이신 강화군민 여러분들께 새해인사 드립니다.

"젊은"과 "성실"이란 이름으로 군민들을 대표하는 강화군의원으로 활동한 2021년도 마무리가 되고

2022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지난 시간들은 강화군에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22년 강화군에 또한번 파란물결로 강화군을 지키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의원으로서 2022년에는 편가르지 않는 강화군 평등한 강화군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했던 지난 시간을 잊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강화군민들께 인사드리는 오현식 의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고용주이신 강화군민 여러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인사



이 만 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존경하는 우리 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이만식입니다.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도 임인년의 의미처럼 굽히지 않고 강인하게 이겨내시어 모두 이뤄내시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활기찬 일상으로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푼 마음으로 기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돌파감염과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희망을 잠시 더 미뤄 놔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화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도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추운 겨울을 잠시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마스크를 훌훌 벗어 던지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건강과 활기 넘치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간절히 기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화군민 여러분들께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건강하시고 고마운 분들과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권 독립’강화군의회, 강화군과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독자적 인사권 확보!!

1월 7일 신득상 의장과 유천호 군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 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 양 기관 간 승진 균형 안배 및 교류를 통한 승진 불균형 해소 ▲ 의회 공무원 교육·채용·후생복지·복무·청사방호·무인경비시스템 운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신득상 의장은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날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득상 강화군의회의장(왼쪽)과 유천호 강화군수(오른쪽)가 7일 강화군청 군수실에서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해인사



송 정 수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조합장

친애하는 축산인 여러분, 강화군민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강화군민 여러분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로 가족과, 친지들과 왕래하기 어려운 많이 안타깝습니다. 설 연휴 멀리 있는 친지들과 마음만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과는 덕담과 함께 따뜻한 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축산인이 마음 편히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서서 축산인의 말씀 대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조성,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협이 앞장서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에는 사랑받는 축산인, 자긍심 높은 축산인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는 검은 호랑이의 힘으로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에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업? 취업? 고민고민 하지마~♪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는

강화군의 직영기관으로 기업과 구직자, 창업자에게 다양한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업

-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 정부 정책자금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 **기존 창업자 지원**
- 매출증대 및 판로개척 정보, 마케팅 정보 제공
- **창업·창직 교육**
- 사업기획,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등
- **시설·공간 지원**
-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공용 공간 제공
- **행사·네트워킹**
- 창업세미나, 유관기관 및 창업자 교류 지원

일자리

구직자

- **취업역량강화교육(일반/NCS(국가직무능력표준))**
- 일반 자기분석,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실습 등
- NCS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자기개발, 조직이해 등)
- **취업멘토링·컨설팅**
- 직업선택, 준비, 실행계획 등 커리어 경로 설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자기탐색 직업심리검사 - 스트레스 진단
- **채용행사**
- 구인·구직만남의 날, VR(가상면접)체험관

구인기업

- **기업홍보 및 채용대행 지원**
- **홍보** 창업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워크넷 등
- **채용대행** 이력서, 적합한 인재 매칭 등
- **우수인재 모집 및 사후관리 제공**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를 통해
정보제공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전경



상담창구



유튜브실



교육장



Startup & Job Center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30,
강화중앙시장B동 3층(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문의 032-934-3088(창업팀), 3098(일자리팀)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이용대상

강화군민 누구나 ((예비)창업자, 구인기업·구직자)

홈페이지

www.ganghwajob.kr



SNS 인스타그램

@ganghwajob

카카오톡채널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

※ 홈페이지 회원(가입) 혜택 ※

최신 취·창업정보 무제한 제공, 특별 사후관리 지원!
꼭 회원가입 하시고 특별 지원서비스 받으세요!

강화군에서는 창업·일자리센터를 농촌지역인 강화군의 구인·구직 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의 원스톱 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현재 기업과 청년, 여성, 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설 및 공간을 확장하여 청년카페, IT 상상 및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등의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준비하는 강화군 직영기관. **1**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오미크론 지역사회 확산 차단 총력

강화군이 지난 6일 긴급 대군민담화를 발표하고 방역대책을 강화

군은 지난 2일 관내 확진자 중 두 명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해 지역사회의 빠른 전파가 우려되므로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검사범위를 넓혀 오미크론으로 확인된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내 분류하고, 모든 밀접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최종 노출일로부터 10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각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경로당과 공공실내체육시설을 8일부터 전면 폐쇄하는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또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등을 점검하고 홍보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의 위험성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결코 약하지 않다”며 “3차 예방접종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께서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 최벽하 기자



출처 : the-scientist

강화군, 정신건강 즉시 확인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운영

스트레스, 우울감 등 건강상태 자가확인, 연계서비스 제공

강화군이 군청과 보건소 1층에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를 설치하고 군민들의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자기 진단을 통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동의 후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우울 정도, 스트레스 지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검진 결과는 즉시 출력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강 주의군 및 위험군으로 나온 군민은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층상담, 치료연계 등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검진기 도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심리 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통해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보건소 치매관리과_무인 검진기 시연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2021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상 수상

“첨단 융복합사업으로 미래농업 비전 제시”



농업기술센터 - 첨단농업

강화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1년도 농촌진흥사업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며 강화군 농업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미래농업 방향 제시와, 차세대 인재 및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기술보급사업 종합만족도, △맞춤 기술교육, △강소농 육성, △6차 산업 상품화 개발 실적, △농업기술 홍보실적, △중앙·지방 지도사업의 협업 등 20개 지표를 종합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군은 전문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 농촌자원 활력화 사업, 6차 산업 상품개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등 적기 영농추진과 농업기술 홍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특화작목 육성,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현장실용 공동연구 과제 수행 등을 통해 명품 강화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강화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ICT 스마트팜사업 등 미래 첨단농업 육성과 청년농업인 및 전문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농업기술 선제적으로 도입해 농업을 진흥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강화군, 2022년 농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오는 26일까지 접수,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에 능동적 대응



강화군이 '2022 농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작물의 재배 적기에 맞춰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 활용사례 등을 병행해서 교육할 계획이다.

군은 '2022년도 농업아카데미'로 △농산물 브랜딩 디자인 △유통브마케팅 기법 △귀농·귀촌 △치유농업 △소형농기계 교육 △밭작물 △포도 △과수기초 △수경재배 △시설채소 △농산물가공 △우리쌀활용교육 △강소농 △생활원에 등의 과정을 마련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최대 2개 과정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단, 농업인의 농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개성을 담은 브랜드를 개발해 농산물을 고급화를 돕는 '농산물 브랜딩 디자인 교육'은 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농식품 가공 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농업인을 우선 선발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아카데미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농업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품목별 특성화를 반영해 전문적인 교육내용을 알차게 준비한 2022 농업아카데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2022년
농업아카데미**

- 교육 신청: 1월 26일까지
- 신청 방법: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방문,
이메일(sunjah728@korea.kr)접수

- 합격자발표: 다음달 11일에 개별 문자 통지
- 문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032-930-4112



**INCHEON GANGHWA
POLICE STATION**

2022년 인천강화경찰서 승진 임용 명단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승진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승진
1	공공안녕정보외사계	경위	양영석	경감	1	교통관리계	순경	박선균	경장
1	형사팀	경장	이건우	경사	2	여성청소년계	순경	기정욱	경장
2	심도지구대	경장	김양식	경사	3	112치안종합상황실	순경	김나현	경장

인천시, '미래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 비전 제시

- 청라 거점 커넥티드카 산업 특화육성 및 미래차 기술전환 생태계 구축 핵심 -
 -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26년까지 1,100억 원 투입, 25개 과제 추진 -
 - 미래차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으로, 인천 자동차산업 기술고도화 목표 -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생태계 구축과 미래차 핵심기술 특화 육성 등을 통해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구조를 신속히 재편하고,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미래자동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과 25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까지 총 1,104억 원(국비, 민간 포함)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은 ▲커넥티드카 산업 특화육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선도, ▲부품기업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 ▲미래차 부품기업 혁신성장 지원,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이다. 시는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5개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 수 885개사(↑257개사/41%), 매출액 17조5천억 원(↑3조2천 억원/23%), 고용 30,512명(↑8,561명/39%)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자동차 산업구조를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해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2단계 국가 공모사업 유치, ▲Tear Down 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2년 차 사업시행, ▲미래차 핵심기술 분야(전동화·자율주행·커넥티드) R&D 지원, ▲미래차 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로드맵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246억 원을 투입하여 청라에 건립 중인 1단계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의 기능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인천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협력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한 국시비 140억 원 규모의 2단계 공모사업(커넥티드카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을 경제청 주관으로 유치해, 소재·부품 인증은 물론 커넥티비티 서비스 플랫폼을 포함한 커넥티드카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천이 커넥티드카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 최초로 'Tear Down 사업'을 부품기업과 함께 추진해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해체하고 기술구조·부품 해석을 실시해 자율주행, 커넥티드, 전기파워트레인 분야 등의 미래차 핵심부품 및 기술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한 미래차 기술전환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차 기술로드맵 연구용역'을 실시해 미래차 시장 동향, 핵심부품 및 기술 트렌드, 세계적 선도기업의 최첨단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차종별 핵심부품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 등을 제시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현재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로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미래차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차 산업을 인천의 핵심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인천시,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매월 10만원씩 지급

민주화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1월 24일부터 신청, 관련자 사망 시 장례비 1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장례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1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의 관련자 또는 유족이며,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월 24일부터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별도의 기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민주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INCHEON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1. 24.(월) ~ 상시
- 신청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 생활지원금 : 한 소위(세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세대)
 - ※ 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 지원금액** 매월 10만원 ※장례비 100만원
- 지급일**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문의** 이추홍 콜센터 ☎ 032-120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 032-440-4124

김포시, 탄소중립 ·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 간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2021년 1월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다.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과제인 '2030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2050 탄소중립 사회'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앞서 정하영 시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국을 신설하고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 최악이었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 됐다.

환경법규 고의 위반은 강력조치 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원정책을 병행하면서 환경피해 민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고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수소충전소 설치... 상용 전기차 보급 지자체 전국 1위 선도

김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용역결과 수송부분이 전체 미세먼지 오염의 2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 전국 최초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전력 제공

김포시는 전국 최고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 등 상용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문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2025년까지 국도비 포함 8814억 원 투입... 분야별 환경개선

김포시는 2018년 7월 부시장을 총괄로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환경개선 특별팀을 구성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의 52.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27.4%)과 산업부문(24.8%)의 오염요인을 개선하고 있다.

■ 분산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으로 공급 안정성 높이고 탄소중립도 실현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기존 발전기와 달리 연료 연소 에너지 변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어 발전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분산 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 2030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에 선정 돼 국비 8억1900만 원 등 총 16억17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앞서 시는 태양광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성면 168가구의 주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개선과 통진·월곶·하성소방서의 신재생에너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모에 참여했다.

■ 체계적인 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발전"

김포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추가로 발굴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비 2500만 원 등 총 5000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030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은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결코 소홀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고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의 경영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주형 기자



2022년 김포시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신설 지급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2년 1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021년 7월에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후손 중 순위 유족에게 올해 1월부터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한다.

김포시는 2021년은 관내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70여명 독립유공자에게 더 늦기 전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Photo NEWS
현·장·행·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유치

김포시, 공공마을버스 업무 협약 체결

김포대로 버스전용차로 현장행정

디지털역량교육

인천 항일독립운동사의 길잡이

인천광역시사 제12호 인천항일독립운동사도서 발간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사 제12호로 '인천항일독립운동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천항일독립운동사'는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와 독립운동의 전개 양상에 따라 식민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술했다.

제1장에서 청일전쟁 이후 외세의 침략 저지와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항쟁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교육 계몽을 위한 사립학교 설립과 야학운동 등의 계몽운동을 수록했다.

제3장에는 1910년 식민지가 된 이후 인천사회의 변화와 1919년 인천 각지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13도 대표자대회'이다.


인천에서 열린 이 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한 한성정부 출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4장에서는 1920년대 인천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망라한 항일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인천지역의 독립운동과 일제 패망 직전에 적지 않은 비밀결사가 조직되었음을 수록했다.

이번 책은 인천의 항일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천사람들의 의병항쟁과 계몽운동, 교육 언론활동, 실력양성운동 등과 부두노동자의 파업,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섬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해상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불의에 저항하며 인천을 지킨 것이 인천사람들이었음을 알려준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그동안 인천의 독립운동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천항일독립운동사'가 인천 독립운동사 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책을 통해 인천시민이 '인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중·고등학교와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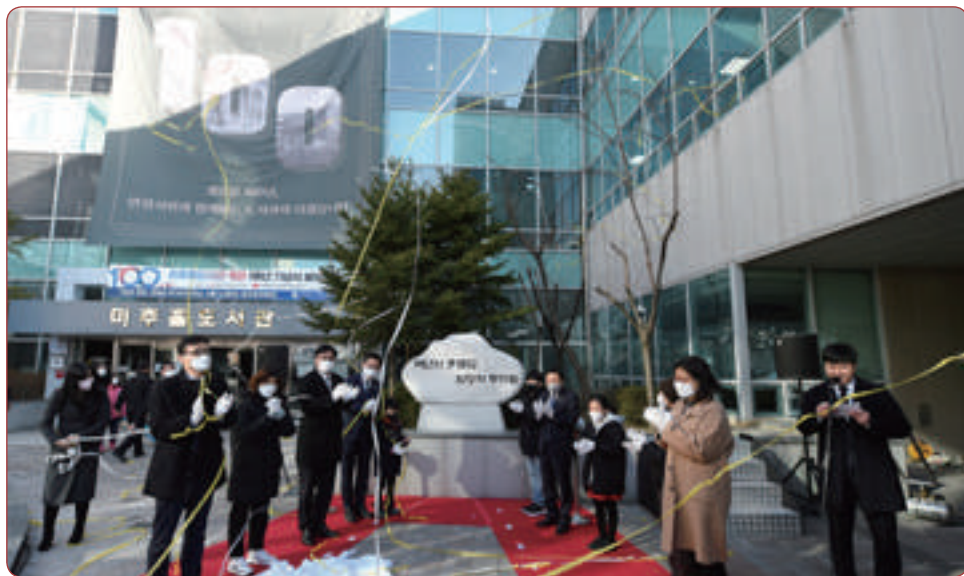


- 권주형 기자

개관 100주년 미추홀도서관, 새로운 100년 준비한다

- 1월 6일 '미추홀도서관 100년' 제막식 개최 -

- 도서관을 사랑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미추홀도서관의 새로운 100년 이어 갈 것 -



베르의 공연, 최태성 작가의 특별 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미추홀 도서관 100년 기념식에는 인천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슬로건 시민공모 최우수작인 '100년의 多讚頌, 희망의 두드림'이 청람 전도진 서예가의 글씨로 각인됐다.

개관 10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특별전 『100년의 도서, 시대를 읽다』와 『100인의 서재』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미추홀도서관은 인천 시민들의 삶 속 도서관의 의미와 기록을 보존

개관 100주년을 맞은, 미추홀도서관이 또 다른 100주년을 준비한다.


인천광역시는 1월 6일, 시민과 함께한 미추홀도서관의 지난 100년을 공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추홀도서관 100년'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원연 미추홀도서관장과 유영란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장, 박현숙 배다리 아벨서점 대표, 박성은 미추홀도서관 재능기부자 등이 참석했다.

100년 기념식 제막식을 비롯해 100년 뒤 시민에게 전달할 메시지와 추천 도서 목록을 타임캡슐에 담아 매설하는 '응답하라 2122'와, 음유시인 트루

한 자료집 발간을 비롯해 분관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올해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100년 동안 변함없이 도서관을 사랑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도서관을 가장 가까운 벗으로 삼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미추홀도서관의 새로운 100년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도서관은 1922년 1월 6일 중구 송현동 1가 1번지 내 청광각(淸光閣·현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이 위치한 자리)에 문을 열었다. 인천 최초의 도서관이었으며 부산, 대구,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 네 번째로 문을 연 공공도서관이었다.

이후 울목동 인천시립도서관(1949년)을 거쳐 2009년 구월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미추홀도서관으로 개칭했다. 

- 권주형 기자

기고

2022(壬寅年) 새날을 열며...



고수진
강화향교 장의

霜月松青榮 (상월송청영)

涪流老不息 (군류노불식)

時矢何馳將 (시시하치장)

束帶昵矜醜 (속대닐금명)

서리 달에 푸르른 소나무
심 없이 여울목 흐르거니와
세월은 어찌 살 같이 재촉만 하는가!
새해 한껏 차려입고 친근한 벼를 찾아
술잔을 자랑삼는다.

子在川上曰(자재천상왈), “逝者如斯夫(서자여사부), 不舍晝夜(불사주야).”
『論語논어』 「子罕자한」 16) 공자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이고 낮이고 그치지 않아!” 또한

詩仙시선이라 불리는 詩시의 천재 이태백은 「將進酒장진주」에서 읊기를
“君不見(군불견) 黃河之水天上來(황하지수천상래) 奔流到海(분류도해) 不復回(불회)
회 그대 보지 못했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치달아 바다에 이르러
서는 돌아오지 않았거늘”하며 찬탄하였던 바, 세월은 한 번 흘러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2022년은 호랑이해(壬寅年)입니다. 호랑이는 산림의 제왕이며, 山神으로
여겨지는 靈驗영험한 존재입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그 사람의 운세를 짐치
기도 하는데, 호랑이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물의 제왕답게 운세 또한 氣기
차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민간신앙에서는 산신 옆에는 반드시 호랑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신이 호랑이로 변신하고 호랑이는 역으로 산신으로 현신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산신을 수호하면서, 山神산신의 뜻을 전달하는 辭令사령입니다. 산신의
기원은 홍익인간의 우리 국조 단군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단군은 우리 韓
한민족, 단일민족이며 그 뿌리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壬寅年을 ‘검은 호랑
이해’라 합니다.

임인년은 六十甲子육십갑자 중 39번째이며, ‘壬임’은 북쪽을 뜻합니다. 동
쪽은 푸른색, 서쪽은 하얀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을 ‘玄현’, ‘玄현’은 ‘검다’
‘가물가물하다’. 검은색을 뜻하므로 ‘검은 호랑이’라 표현하나 봅니다.

참고로 서울 인왕산은 호랑이 산으로 유명합니다만 인왕산은 서울 서쪽으
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白虎山백호산’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교수신문이 지난해 辛丑年신축년을 “貓鼠同處묘서동처”와 “人困馬乏인곤
마핍”을 사자성어를 선정했다고 유교신문 신년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는 즉 고양이와 쥐새끼가 의기투합했고, 그러한 병폐로 백성이나 모든 물정
이 곤핍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코로나 전염병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일반 민
중들에게 토지개발공사 공직자들의 일탈과 대장동 몇몇의 일확천금이 나라
전체에 곤혹감을 안겼다고 짐작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고양이한테 생선가
계를 맡긴 격이고, 뒤주 속으로 쥐새끼를 몰아갔다는 꼴입니다.

평등과 공정, 정의를 부르짖는 시대의 배신이랄 수 있겠습니다. 공직을 봉
사하는 사람들에게겐 ‘先公後私先公후사’나 ‘滅私奉公멸사봉공’이 철칙입니다.
공직자는 모든 부분에서 공공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한데 이를
묵살하고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전념한 것입니다. 공공의 정보는 공정한 경
쟁을 통해 우선순위가 가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이용해 개인적으
로 先取先利先취선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무를 통해 부당하게 국가기
밀을 먼저 취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착복한 것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의 변별, 직분의 정당한 禮道예도를 상실한 것입니
다. 공직이 하나의 권력으로서 일반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면 야만의 호랑이
에 불과한 짓거리일 것입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구청의 한 공무원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주민
의 정보를 팔아넘긴 정보 탓에 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됐다는 소식이었습
니다. 啞然失色아연실색, 茫然自失망연자실 자체였습니다. 公僕공복이라는
신분으로 백성의 生死與奪權을 쥐고 막무가내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
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돈 몇 푼에 스스로가 야만의 짐승이 돼버린
것입니다.

국가의 刷新새신은 공무원의 기강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虎嘯谷風호소곡풍’입니다. 호랑이는 산림에서 절대 권력이랄 수 있습니
다. ‘호랑이 咆哮포효에 골짜기에서 쉼없는 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그만
큼 호랑이 존재감은 위력적입니다.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긴 합니다만 산림
의 질서를 제어하는 위엄이 있고 모범적이며, 도덕적인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공직의 신분 역시도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를 안정되게 선도하는
청렴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사찰 대웅전 뒤쪽으로 삼성각 또는 산신각 탕화나 민화에서 사랑방 화룻
불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애교스럽고 친근한 모습도 보
입니다.

산신 옆에는 호랑이 배경으로 老松노송이 우거진 산에 까치도 등장합니다.
이는 민간신앙의 징표입니다. 산을 대지로 산신을 착한 인간으로 호랑이 까
치 소나무를 동식물로 온 세상 모든 물상이 합치하는 생명과 자연 무병장수
의 기원인 것입니다.

까치는 천상의 심부름꾼으로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길조입니다. 이에 호
랑이는 의롭고 신중하며 권위를 존중하고 어진 이를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반면 부패하고 부정한 경망스런 狐假虎威호가호위 압삼이 권력을 징치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에 호랑이는 신성함과 지혜, 막강한 힘과 늠름한 용기
정의의 표상인 것입니다.

‘강화 투데이’ 독자 여러분!! 임인년 새해 댁내 만복을 기원합니다.

‘강화 투데이’가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까치 투데이’로 거듭날 것이며, 부
정과 부패, 불공정을 특히나 코로나 전염병을 확, 끌어내는 ‘虎嘯谷風호소곡
풍’의 해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 데이비드 메이슨 지음/신동욱 옮김 『山神산신』

내가면, 초등학생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릴레이 기부

배영만 어르신, 100세 생일상 대신 이웃사랑 실천



강화군 내가면(면장 차은석)에서는 동절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훈훈한 릴레이 기부가 어린아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가면은 내가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눔 장터로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기탁한데 이어, 외포리에 사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50만 원, 강화컨테이너 대표 김은수가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00세를 맞이한 배영만 어르신이 생일잔치를 대신해 이웃을 위해 15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 최백하 기자

새해맞이 따뜻한 차와 떡 나눔 행사

새마을강화군지회 회장 조인술, 바르게살기강화군지회 회장 임인관 새마을강화읍지도자 격려

새마을강화읍협의회 지도자 회장 신봉기 외 회원 35명은 5년째 새해 첫날 가족들과의 첫 식사도 못하며 새벽 5시부터 남문 앞에서 따뜻한 인삼차와 커피, 가래떡, 오뎅을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을 하며 일부 회원만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새마을강화군지회 회장 조인술, 바르게살기강화군지회 회장 임인관은 매섭게 추운 새벽 날씨에도 소식을 듣고 새벽 5시부터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회원들을 격려해 주었다.

새해 첫날 희망을 담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시작한 이 행사의 훈훈함이 코로나19로 늘 불안한 현실을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기를 바란다. 새마을강화읍협의회 지도자들은 전했다. - 최백하 기자



‘사랑의 밥차’ 행사

강화읍 한국글로벌세프고, 직접 만든 한우곰탕

강화군 강화읍(읍장 주우종)은 지난 30일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가 관내 저소득층에 전해 달라며 곰탕도시락 100개를 읍사무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된 도시락은 연말연시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조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주우종 읍장은 “학교에서의 배움을 활용한 학생들의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코로나로19로 힘들지만 미덕은 계속되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2층 위드



아들의 일을 돕고 있는 정모씨는 점심시간이면 늘 뭘 먹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배달문화에 익숙한 아들한테 늘 메뉴를 맡긴다고 한다.

지난 4일, 갈비탕과 비빔국수를 시켜서 먹으려고 하니 밥만 누락, 배달되지 않아서 밥한끼도 편하게 먹지 못하고 편의점으로 포장밥을 사러 가는 아들을 보고는 속상했다고 한다.

편의점 밥이 싫어서 그러나... 아들이 핸드폰을 계속 하길래 빨리 먹으라고 하니 “엄마 사장님이 밥 갖다 준다는거 나중에 서비스로 주세요. 했더니 지금 배달온거 엄마 비빔국수까지 다 환불을 해주셔서 다시 결제해 드린거야!

그럼 혹시 며칠전 배달시 젓가락 누락도 잊지 않고 있다가 음료수 서비스로 준 식당도 여기니? 맞아 엄마!

요즘 얼마나 남는다고 다 환불을 하나며 다시 결제해 준 착한 아들도 고맙고 농협하나로마트 2층 위드 식당의 따뜻한 처리가 가슴뭉클, 울컥해져서 하루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위드에 전화를 걸어서 힘내시라고, 고맙다고, 감동했다는 말을 전한 후 강화투데이 훈훈한 세상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들다고 하는 요즘, 일의 분담없이 닥치는데로 열심히 살아야만 코로나19가 만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에 조금이나마 훈훈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강화에도 배달문화가 신속하게 변하여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음은 음식문화 발전으로 위드와 같은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음이 아닐까? - 최백하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나은 인쇄·광고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인쇄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명함 ·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책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2022년 중봉도서관 부모독서지도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집공부



강의개요	강의내용
강의명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집공부	1 2월 4일(금) 14:00-16:00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 맺기
강사 이진혁(작가)	2 2월 11일(금) 14:00-16:00 초등 집공부 기본기 키르기
기간 2022.02.04-02.25(금) 14:00-16:00	3 2월 18일(금) 14:00-16:00 초등 학년별 / 과목별 집공부 방법
운영방법 온라인(Zoom)	4 2월 25일(금) 14:00-16:00 학부모, 관계의 달인

신청 및 문의 | 중봉도서관 북매-1지 문화행사 코너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031-5186-4801



2022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Fighting! Ganghwa!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